



대한국제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원님

제목 : 이성덕 학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전임 회장님, 선배, 동료 학회원 여러분, 제가 1953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른 유서 깊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국제법학회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나라를 구하고, 반석위에 올려 놓는데, 국제법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선배 국제법 학자 및 실무가 분들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 만든 학회입니다. 학회가 결성되고, 초기에 유진오 회장님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학회가 오늘날의 굳건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회장직을 부여받은 저는 이러한 선배님들이 해 오신 학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감과 아울러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제19회를 맞이하여 성년이 되는 국제법학자대회는 여태까지 학회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분과 위원회는 국제법학자대회에서 한 세션을 담당하여 운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부 학회들이 출범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와 국제법 관련 여타 학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 관련 학회와 함께 국제법학자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제법학자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신진학자대회를 국제법평론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개최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법의 저변 확대와 국제법 관련 당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회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애쓰신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계속 그 뜻을 이어감과 아울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석현 회장님 당시에 도입한 국제법 현안 관련 긴급 워크숍, 서철원 회장님께서 정인섭 회장님께 부탁하여 시행한 국제법 현안브리프 발간 등은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현안워크숍 및 현안브리프 발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보다 더 국제법 관련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국제법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을 통한 독도 관련 국제법 홍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추가하여 우리나라 관련 국제법 문제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튜브 등을 포함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학교에서 국제법 교육 및 연구가, 심하게 말하면, 황폐화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국제법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학회 차원에서의 재검토 및 일반 대학원에서의 국제법 전공자 양성을 위하여 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보겠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학회의 활동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논총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단순 행정 착오로 학회 논총이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조금 더 주의하고 준비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회 논총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회 논총에 투고되는 원고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 학회의 중심이 되는 학회원 분들의 투고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일부 회자되는 바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총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분들과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에 일본국제법 학회가 올 9월에 개최하는 '1969년 조약법협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우리 학회 회장과 우리 측 발표자 두 명을 초청하였습니다. 2016년에 개최된 우리 학회의 국제법학자대회에 일본 국제법학회 측 발표자를 초청하여 이재곤 회장님께서 체결한 MOU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학 분야와는 달리 국제법 분야는 국제 교류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일본 국제법학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과거에 수립하였던 중 일 3국간의 학술 교류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일들은 저나 저를 도와 같이 일하는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학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아져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바라면서 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4.

이성덕